



## 오비고, 최대주주 15억 장내 매수...“주주가치 제고 및 성장 자신감”

- ▶ 오비고 장영준 최대주주,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가 안정화 목표로 26만주 장내 매수
- ▶ 3대 AI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독보적인 성장성 증명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목표

<2026-06-11> 모빌리티 ‘라이프 AX(AI 전환)’ 플랫폼 전문기업 오비고(352910, 대표이사 황도연)는 최대주주가 주주가치 제고 및 중장기 성장 잠재력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가를 다지기 위해 장내매수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오비고측은 “장영준 최대주주가 최근 한 달간 사전 거래계획 공시에 의거해 자사 주식 약 26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취득 단가는 5,574원으로, 총 매수 규모는 약 15억 원이다. 이번 주식취득은 거래계획 사전공시 제도의 취지에 맞춰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장영준 최대주주의 지분은 기존 20.58%에서 22.67%로 소폭 상승했다.

회사 측은 최근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 가치 및 중장기 성장 잠재력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어 최대주주의 매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사주 매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오비고는 ▲‘픽시리즈’를 주축으로 한 AI 콘텐츠 ▲자회사 ‘카랑’과 연계하는 AI 카케어 ▲전력·로봇 등 타 산업군으로 확장하는 피지컬 AI 솔루션 사업을 3대축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AI 콘텐츠 사업은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산업 성장성에 따른 구조적인 차량 내 콘텐츠 수요 확대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오비고는 글로벌 완성차 향 픽시리즈 공급 확대를 통해 구독 매출, 광고 등 안정적인 플랫폼 수익 구조를 안착시키고 있다. 여기에 자회사 카랑을 중심으로 한 AI 카케어 부문의 매출 가시화가 더해지며 실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나아가 오비고는 최근 키움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확보한 15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핵심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 솔루션 분야 확장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검증된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전력, 로봇 등 이종 산업으로 이식하는 기술 고도화 및 산업 분야 확대에 집중 투입해 중장기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비고 관계자는 “이번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수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신뢰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회사가 추진 중인 핵심 플랫폼 사업의 성장 궤도가 확실한 만큼, 독보적인 성장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 내며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